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9, 요한복음 7장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션 9, 예루살렘의 긴장된 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 입니까? 요한복음 7:1-52.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요한복음 7장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6장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군중과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몇몇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심지어 열두 제자를 불러 군중을 먹이고 토론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헌신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빵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든 자기 백성을 어떻게 유지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믿음과 그분 사이에 큰 비유를 하십니다. 믿음을 매우 직접적으로, 생생한 방식으로 비유하시면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베드로가 자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과 함께 예수와 함께 머물 것이라고 단언하는 다소 불길한 말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실제로는 변장한 마귀이므로 제자들 사이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떠난 13장에서 정점에 이르며,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는 18장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갈릴리에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는 그의 형제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들은 명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야 할지 말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대기에 관한 메모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르면 비록 복음 이야기 전체가 절반도 채 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마지막 몇 달인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막절(7장 2절), 초막절 또는 히브리어로 초막절이라고도 알려진

가을 축제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수전절, 즉 하누카에 관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봄에 있는 유월절은 요한복음에 언급된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John은 분명히 연대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에 대해 그리고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정확한 시기와 상대적인 순서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다른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에 연대순으로 언급하는 한, 이것은 우리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봄으로 이어지는 가을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에 나오는 세 가지 다른 절기를 언급하며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소위 절기 주기의 일부로 우리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마다 다음을 염두에 둡니다. 이야기 흐름. 따라서 이 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빠르게 살펴보세요.

이 장에는 예수님에 관해 많은 의견 차이가 있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믿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장이 시작될 때 그의 형제들조차도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에게 장이 시작될 때 축제가 가까웠고 그가 거기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에 가서 그의 일을 행하여 사람들이 그를 믿게 하라. 물론 편집자 요한은 5절에서 자기 형제들조차 그를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과 그의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이것이 당신의 공연이고, 이것이 당신의 일이므로, 거기로 가서 비웃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7장의 첫 두 구절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발견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곳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미 그분을 체포하고 처형할 방법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다소 신비로운 말씀 중 하나를 하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미워할 수 없지만 나를 미워합니다. 사악한. 너희는 축제에 나가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번 축제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신 후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나 며칠 후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는 실제로 예루살렘 축제에 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가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하는 데 약간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그의 형제들이 명절을 위해 떠난 후에 예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14절에서 절기 중간쯤에 그가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성전에 가지만 군중을 선동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은밀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10절에 근거하여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를 잡으려고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군중조차도 그가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나머지 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속삭임이 널리 퍼졌습니다. 일부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다른 일부는 그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어떠할 것입니까? 아마도 이들은 2장에서 언급된 사람들로서,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런 의미에서 그분을 믿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왕국을 위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어떤 공로를 보내신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에 대한 진정한 구원의 믿음으로 판명될 것인지 여부는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따라서 여기 12절과 13절에 나오는 군중 사이의 이러한 분열은 예수님을 잡으러 나가고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 그를 체포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더욱 악화됩니다.

그러므로 명절의 첫 번째 부분은 분명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지만 명절 중간에 아직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14절). 그는 그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구어체 표현이 퍼지면서 일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여겨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런 학식을 얻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신학교 졸업생 이 아니셨고, 어떤 랍비들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얻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5장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자기의 가르침은 아버지에게서 난다고 설명하십니다.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라고 묘사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19절에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거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거늘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 군중은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귀신 들린 게 틀림없다고 말하는데 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당국자들이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단지 기만적인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해치려는 음모에 대해 결백한 것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21절부터 24절까지 또 다른 큰 빨간색 글자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기적을 행했다고 가르치시는 또 다른 블록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 그게 무슨 기적에 대해 말하는지 놀라시나요? 아마도 5장으로 돌아가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사람이 나오는데, 이는 물론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된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기적을 행했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놀라는 이유는 모세가 여러분에게 할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 것이 출애굽기가 아닌 창세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점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소년에게 할례를 행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8일째 되는 날에 할례의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남자라도 안식일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데 안식일에 이

중풍병자를 돌보았으니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노하시느냐? 온몸을 다 돌봐줬는데 포경수술은 괜찮은데 이걸 아니야.

그래서 24절은 피상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르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율법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방식은 바리새인의 전통과는 다소 다릅니다. 그러므로 25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계속되는 분열은 매우 분명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그에 관해 말하는 권위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혼란과 소동 속에서 초막절을 위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께서 무리 가운데 드나들고 계시는 가운데,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분을 진실로 믿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중 일부는 25절에서 이 사람이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짓도 하지 않습니다. 당국은 그가 메시아라고 실제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메시아가 오면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기원이 매우 신비롭다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모든 혼란 속에서 예수님은 28절에서 다시 묘사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시오?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도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서 왔고 그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를 압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 5장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요점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5장에서 그분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과 아버지의 대리인이 되는 것, 그리고 당신이 나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미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낸 사람. 30절은 이에 대한 반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했으나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소 신비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여기서 체포되지 않기 위해 초자연적인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상황을 명령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체포하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회의적이었습니다(31절). 군중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를 믿지 않는다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해야 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를 거부하게 놔두세요. 왜냐하면 그가 확실히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731년에 있는 이 본문은 9장에서 소경이 바리새인들과 예수의 정체성에 관해 논쟁을 벌일 때 그가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안식일에 일했고 소경이 일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지 글썄,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나도 한때 눈이 멀었다는 걸 알아 지금은 네가 그 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겠다. 그래서 그것은 군중 사이에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다소 실용적인 논쟁이지만, 내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논쟁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군중 중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참된 제자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머물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로서 행한 기적은 2장의 끝 부분에 다시 나옵니다. 따라서 표적과 믿음의 주제는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 번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732년부터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군중과 이야기하는 것만큼 묘사되지 않습니다. 이제 초점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그를 체포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그의 정체성에 대해 작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32절에서는 나머지 장의 초점이 종교 지도자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예수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군중이 그분에 대해 속삭이는 것을 듣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체포하기 위해 경비병을 보냅니다. 분명히 그분을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경비병이 그분과 마주했을 때 그들은 다소 최면에 걸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강해서 그들은 그분의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그들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33-34절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아보아도 나 있는 곳에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올 수 없느니라. 33-34장의 이 구절은 유다가 떠난 후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인 13장에서 반복됩니다. 그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잘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한다. 나는 지금 그것을 너희에게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말은 13장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를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이 나가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로 순회하려 하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리스인과 그리스인에 의해 아마도 그리스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 민족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분산의 일부이고 유대교의 더 그리스화되거나 헬레니즘화된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진술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우리는 여러 면에서 이 장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언급되는 진술 중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14절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명절의 마지막 날인 37절에 보면 명절의 가장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큰 소리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에 대한 다른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그러나 나를 믿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목마른 사람이 나에게로 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마시게 하십시오. 따라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구절의 질문은 예수께서 자신을 신자들을 위한 성령의 근원으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신자들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성령의 근원으로 말씀하시는지 여부입니다. 어쨌든 39절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는 다락방의 가르침과 매우 흡사합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의 고별 담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절부터 39절까지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확실히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의 이전 장에서 방금 보았던 신명기 18장의 환상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메시아인 선지자는 그들의 생각이 동일하거나 아마도 군대 또는 시민 지도자였던 선지자와 영적 지도자인 메시아 사이에 마음이 구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메시아에 대한 이해의 유형은 이 군중들 사이에서 매우 다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41절에 세 번째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메시야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이신 것을 알고 미가서 5장 2절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메시야가 다윗의 후손과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43절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읽었다면 농담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이 문제를 바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확실히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붙잡고 싶어 했지만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이 모든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의 본부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체포하라고 보냈습니다.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매우 흥미롭고 다소 당혹스럽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아마도 그를 체포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과 그가 말하는

내용에 너무 감명을 받았고 당신이 거기에 넣고 싶은 단어가 무엇이든 너무 당황하고 매료되어 그들은 그를 체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했다면 거기에는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는 군중에 의해 구타당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따라서 이 장의 다음 부분은 군중 속에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부분에서 매우 흥미 롭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으러 보낸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사람이 너희도 속였다는 말이냐? 바리새인의 관원 중에 그를 믿은 자가 있느냐? 아니요, 그러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 폭도들은 그들에게 저주를 받았습니 다. 따라서 미슈나의 랍비 유대교와 다른 랍비 자료에는 법을 모르는 그 땅의 사람들을 암하레츠(Am-harez) 라고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

이 땅의 사람들인 암하 레츠 는 토라를 연구하는 탈무딴 과 구별되기 때문에 때로는 토라 연구에 참여하는 동료인 하바림 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멸시되기도 합니다 .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 교육계의 상층부와 성전 설립을 대표하고 일반 사람들을 멸시하며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폭도들은 그들에게 저주가 있다는 것을 무엇을 압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공의회에 관해 산헤드린에 소수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나오는 우리 친구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는데, 50절에서는 앞서 예수께 갔던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아니하고 정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니고데모는 그들에게 잠시 공정성을 갖도록 요청합니다. 그건 그렇고, 미슈나와 산헤드린에 대해 말하는 소책자를 보면 미슈나는 특히 사형 범죄의 경우 산헤드린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꼼꼼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의의 오심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이 예수를 부당하게 대했던 방식을 복음서에서 읽을

때, 그들이 공관복음의 관점에서 부당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조차 부당하게 행했다는 것이 미슈나에서 아주 분명해집니다. 지침.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소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공평함을 묻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대답은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을 모욕한 것처럼 니고데모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47절에서 그들은 체포측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을 속였다는 겁니까? 52 니고데모에게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하니 이것은 기본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을 토라 준수에 있어서 꼼꼼하지 않은 시골뜨기 무지한 사람들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인종적, 사회적 비방을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고 있던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니고데모에게 실제로 말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별명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이름을 불렀고 그것이 이름을 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적한 바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당신이 그것에 대해 연구한다면 그 진술이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아니지만 이 장의 다른 것들만큼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다시 발견하면, 성전 산 안팎 어딘가에 분명히 그분이 계셨던 곳에서 잠시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순례자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을 것이다.

미슈나에 따르면 초막절에는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실로암 못은 요한복음 9장에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9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셨던 성전 주변에서 우리는 이 그림들을 보고 성전 시대에 지금 알아크사 모스크에 바위 돔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계단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중 문과

삼중 문 지하 계단이 이방인의 뜰인 여기 지역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뜰로 인도하고 결국에는 지성소가 있는 지금 여기 모스크가 서 있는 이 지역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 근처에 있었어요. 통곡의 벽과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 이 큰 광장이 그것으로 이어지는 광장이고 통곡의 벽은 옹벽 서쪽 벽입니다. 히브리어로 코텔이라고 불리는 곳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나쁜 관점에서는 실제로 볼 수 없지만 바로 여기 있는 이 영역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박물관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모델의 남쪽에서 본 모습이 있는데, 남쪽에서 성전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부분에는 아마도 실로암 못이 있었던 곳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막절과 관련하여 제사장들이 여기로 내려와 물을 길어 올리는 의식의 일부로 물을 길어 성전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시 우리는 실로암 못에 대해 나중에 9장에서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내 눈으로 볼 때 신자들에게 흐르는 생수의 강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비유는 아마도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관련된 초막절 의식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의 중간에 우리는 모든 소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 중반부터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이 가르치기 시작하기 전부터 그분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가르치실 때에도 그분에 대한 모든 추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은 문학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내가 보기에 여기에 있는 것은 737년부터 739년까지의 예수의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본문과 그로부터 멀어지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지도자들의 계획에서 정점에 이르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7시부터 32시부터 36시까지 당신은 그를 체포하려는 지도자들의 모든 다른 견해와 계획에 대해 배웁니다. 그 다음에는 37장 37절부터 39절까지가 있는데, 이는 이 장에서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은 그가 이미 5장에서 말한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40절부터 52절까지 내부 공의회 회의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하인들을 보냅니다(7:32-36). 예수께서는 영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의 가르침은 너무 인상적이거나 매혹적이어서 하인들은 예수를 체포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회에서 그들끼리 싸움을 벌입니다. 니고데모가 의회의 다른 사람과 합류했는지 궁금해합니다.

19장에는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는 일에 동참한 아리마대 요셉도 유대인 의회의 일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적어도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와 사적 정서에 동참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대부분은 그랬지만 사도행전 초기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분명히 말하지만 유대 민족 중 어느 누구도 예수를 거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연구할 때 일종의 암묵적인 반유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에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진술이지만 본문에 따르면 그를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그의 백성 중 많은 사람이 그를 영접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니고데모가 이미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린치 사고방식에 최소한 건전한 말, 경고의 말, 정의의 말을 전한 것에 대해 일어서서 응원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7장의 이 부분에서 지금부터 계속되는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균중 사이의 분열, 논쟁,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7장에서 묘사된 것을 보았고, 이 모든 구절은 이미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균중을 가르치시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8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9장에는 고침을 받은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점점 더 강렬해집니다. 10장도 우리가 따뜻하고 흐릿한 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한 목자 담론이라고 부르는데, 사랑이 많으신 목자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사실이지만 문맥상 이야기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긍정적인 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다른 목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결국 비참한 목자로 변해버린 이스라엘의 목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자신. 문맥상 요한복음 10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우 부정적이며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마지막 10장에서 점점 더 정점에 다다릅니다. 당신은 그가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이 예수를 한 번 더 돌로 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이 끝나자 예수께서는 잠시 쉬시고 트란스요르단으로 가십니다. 본문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에서 일이 시작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장은 우리를 1장으로 다시 데려가므로 예수께서 그의 친구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그 지역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7장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갈등과 모든 분열을 볼 때 이것이 다음 몇 장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접하게 될 유형의 자료이고 John을 읽는 것은 실제로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혼란이 있고,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분위기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로 입성하신 후 공관복음을 읽을 때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 지역의 성전 주변에서 한 사람씩 어울리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그를 속이거나 그를 곤경에 빠뜨릴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소란스러운 시간이고 많은 갈등이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며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배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초막절을 흔히 부릅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그것을 초막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의 초막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신명기,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와 스가랴서에서 그것이 어떻게 관찰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많은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본문은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흥미롭습니다.

미슈나 소책자 초막절은 서기 2세기 말까지 초막절이 어떻게 이해되고 실행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결국 미슈나에 약 200개 정도 기록된 구전 전통 중 다수는 아마도 미슈나가 실제로 수정되어 기록되기 150~200년 전 예수 시대에 이미 시행되고 실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을 축제이고 아마도 두 가지 다른 것을 기억하기 위해 임시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방식과 추수를 축하하고 곡식을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의미 모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공급하시는 데 신실하셨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 동안 그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데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내어 토라의 초막절을 더 깊이 살펴보고 초막절이 어떻게 준수되도록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이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도 다른 일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좀 더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날 전형적인 미국 장소에서 초막절이 어떻게 관찰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 그랜드래피즈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데, 초막절 무렵 가을에는 옆마당이나 뒷마당에서 이러한 유형의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Lowe's나 Builders Depot 또는 목재 야드라고 부르는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격자 작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그것을 설정하고 다양한 유형의 브랜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옥수수 줄기가 있어서 장식하거나 지붕을 살짝 덮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합판 시트를 일종의 격자 작업이나 거리 수준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발코니 공간의 임시 가지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아직도 유대 민족에 의해 전 세계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축제인 것 같습니다. 공기가 상쾌하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가을에 밖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 있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볼 때 아마도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38절에서 생수의 강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39절에서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 물이 상징적으로 사용된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데,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세례가 성령 세례를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물 세례임을 인정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의. 2장과 3장에서 물에 대한 추가 언급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수에 관해 말씀하시는 4장에서 매우 중요한 언급일 것입니다.

그 본문은 아마도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 묘사하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되돌아보면 물론 거기에도 물의 상징과 물의 사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이사야 44장과 이 모든 본문,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같은 본문에서는 강이 에덴동산의 강을 연상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우리가 누리는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만 있으면 됩니다. 목이 마르고 수도꼭지를 틀면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으며 건기와 우기가 있는 기후에 살고 있어서 물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대교에서 종교적 정화를 위한 종교적 목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요리에 물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존할 수 있도록 수조와 기타 모든 것을 갖춘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은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큰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우리에게 그다지 많은 것을 말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은 이스라엘에서 일종의 계절적인 일이며, 봄에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주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상징주의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7장 37-39절, 특히 미슈나의 본문인 7장 38절의 이 본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서기 2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토라에 대한 초기 유대인의 해석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아마도 예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초기 랍비들의 전통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의 전경이 아니라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초막절을 다루는 소책자에서 M-숙은 미쉬나를 의미합니다. 초막절의 소책자 4장 8-10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잔치 마지막 날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돌려주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특정 희생의 해방을 위해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언제 그곳에 계셨는지 궁금해합니다.

37절에 보면, 서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물을 길어올 때 이 일이 행해졌는지, 어쩌면 당신은 연못의 물을 성전에서 사용하기 위해 가져왔는지 여부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미쉬나에 배경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생수의 강이 문자 그대로 그 속에서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신 내용입니다. NIV는 그들이 성 중립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복수형으로 바꾸었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이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는 구체적인 본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물 흐르는 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사야서 55장, 스가랴 14장, 에스겔 47장과 같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풍부한 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축복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은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에 대해 말씀하시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용 성경이나 참고문헌이나 메모가 있는 성경이 있다면 ESV와 NIV가 가장 최근 번역본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NLT를 확인하지는 않았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종종 그들은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본문을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와서 마시게 하십시오 .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텍스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쎄,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신이 물이 흘러나오는 저수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은 분명히 그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와 개별 신자들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텍스트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은 텍스트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의 이탤릭체 부분은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심표'로 번역하면 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름과 같이 마시라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경우 마음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신자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이 가장 의미가 큼니까?

위로자, 조력자, 성령의 역할에 대해,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성령의 궁극적인 근원인 성령의 객관적인 근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 본문은 예수께서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서 성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오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내재화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자신이 모든 신자들을 위한 성령의 근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고려할 때 우리가 더 익숙한 번역이 아니라 여기 구절의 대체 번역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그다지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지만 개인 신자들로부터 성령이 풍성히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바울의 후기 가르침은 아마도 그러한 강조와 더 유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요한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께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참된 근원이자 저수지이시라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1장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 아닙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이것이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께서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추가 본문이 있는 다락방에서 들었던 내용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도 요한복음에서 그 영에 대한 마지막 언급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영의 근원이기 때문에 요한의 전반적인 가르침은 교회에 성령을 가져오시는 분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공동체에는 성령의 사역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의 역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주 예수님을 반드시 존경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특히 14장부터 16장까지에서 성령에 관해 우리가 읽게 될 것은 성령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은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성령의 근원이시며 그 반대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2장의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에 성령을 보내시어 그의 몸이 세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예수께로 오는 자와 그를 믿는 자는 예수의 마음에서 나온 자라고 말하는 구절의 번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주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십니다.

실로암 못에 대해 말하면 여기에 몇 가지 이미지가 더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는 분들은 그곳이 실로암 못이었다고 말한 한 곳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장소가 그 장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픽셀이 충분하지 않아 확대하면 이것은 매우 나쁜 사진입니다. 그러나 성전 산의 윤곽을 볼 수 있으며 여기 아래 낮은 예루살렘 아래 가장 낮은 지역은 아마도 성전이 있는 곳일 것입니다. 연못 실로암의 이름은 이전에 확인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실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 확대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이 못을 실로암 못으로 보여주고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리는 구약성서의 유적지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대식 건물 프로젝트를 위해 발굴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근처에서 또 다른 거대한 웅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실제 실로암

못으로 간주되는 방식은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초기 그림입니다. 조금 후에 그들은 돌이 실제로 없어진 곳에 판자를 채웠고, 그래서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은 여기 모퉁이와 90도 이상의 각도를 이루고 있어 일종의 사다리꼴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 에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저는 이 사진과 그것을 설명하는 현수막 사진을 여기에서 찍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완성되었을 때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이 터널을 만들고 그 행위에 못을 만든 방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풀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0장과 연결하여 그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아티스트의 표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요르단 계곡으로 내려가는 장면 전환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각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이 코너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그 쪽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은 아주 아름다운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두 소년의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본 내용을 되돌아보면 이 장은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신지에 대한 혼란과 불일치, 혼돈으로 가득 찬 장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요한복음 7장을 볼 때 진짜 질문은 이 사람, 이 사람, 이 동료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 장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에 대한 의견과 관점의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배자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를 찾고 있으며 체포대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과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는 특히 예수님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사이에서 질문은 그가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그토록

똑똑해 보일까요? 우리는 그를 어떤 사람들이 그가 귀신들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어떤 알려진 랍비 자료와도 연관시킬 수 없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말하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분열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두고 여전히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영상을 만들고 보고 요한복음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가 참 메시아이고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니라.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션 9, 예루살렘의 긴장된 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 입니까? 요한복음 7:1-52.